

나눔이 기적이다



김홍섭 (인천시립대,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

경제불황과 양극화

경제적 사회적 차이에 따른 양극화는 이 시대의 한 특징이며, 그 의미는 서로 상이한 양끝으로 지향되는 경향성의 심화를 의미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양극화는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으로 회자되고 있다.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우리는 보수라 하며, 그와 달리 현상에 문제점을 들춰내어 개혁과 변화를 좀 더 빠르게 제시하고 추진하려는 경향성을 진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인식의 차이에 근거하며, 지역간, 계층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보수 측은 성장을 우선하여 분배의 파이를 크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측은 지난 우리 경제가 수십 년간 불균형 성장주도로 추진된 결과로 사회의 갈등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고른 분배와 평등가치를 강조하며 중,장기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경제적 사안의 차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갈등현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차이, 중앙과 지방의 이해 차이, 수출입 중심기업과 내수중심의 기업, 산업구조상에서의 불공정과 그로 인한 갈등

등 실로 다양하다. 고용의 형태에도 불균형과 양극화가 존재하며 그 경향은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에 심화되고 있다.

나눔과 상생

오늘의 불황과 경제적 난관의 탈출구로 우리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나만 잘 살기보다 함께 나누어 살 때 길게는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97년 IMF관리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며, 동료들의 해고를 방지하여 함께 일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한 유한킴벌리의 사례는 많은 교훈을 주고 지금도 성공사례로 배우고 있다. 금년 초 한 신년대담에서 정진석 추기경은 “나눔이 기적이다”란 취지의 말을 했다. 예수님이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이가 자기만 먹으려 가져온 음식을 꺼내어 예수님께 드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나눌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열 두 광주리나 남았다는 의미다. 초자연적인 사건도 가능하지만, 나만 위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여 내 것을 내어 남과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나눔’이 그 기적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었다. 나눔에 대한 기대와 책임은 많은 소득을 갖은 부자나 더 많은 정책결정의 권한을 갖는 상위층 사람들에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사회문제에 기독교적 대응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으로 몇 가지를 제안한다면, 먼저, 예수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마:5장)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란 황금률은 우리 사회문제 해결의 대원칙이다. 그리고 잃은 양 비유(눅15:4), 선한 사마리아 비유, 부자 청년의 비유 등에서 보듯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양과 염소의 비유(마25:32-46) 등에서와 같이 사랑의 실천을 이 세대 문제의 해답으로 다시 강조해야 한다.

둘째, 초대교회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나누고 유무상통하며 상생하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래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

고 ‘사고, 질병 외에도 불평등과 같은 사회 요인이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평등한 사회가 건강하다’는 결론이다.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는 말만 무성한 것보다 행동을 요구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2:16~17) 라고 복음서에 쓸 정도로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도 행동을 강조한다. “빵을 나 혼자 먹으면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남과 나눌 때 빵은 영혼의 선물이 된다”던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되뇌이게 된다.